■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가장 잘 하는 것 성경: 마태복음 25장 14-30절

Tag: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25:14-30)

오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하여 교훈을 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창작한 이야기인데 일종의 드라마와 같다. 또는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그 종들은 사람들로 달란트는 재능으로 장사하였다는 것은 재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나중에 회계하는 것은 심판 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된다는 것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책망 받는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쉽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지만, 난해한 측면도 있다.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서민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했다는 느낌이 든다. 일단 달란트가 아닌 므나로 표현된다. 종도 3명이 아닌 10명이 등장하고 주어지는 돈도 차별을 두지 않고 각각 한 므나씩 10명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떤 종은 한 므나로 열므나를 어떤 종은 다섯므나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므나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 (능력은 비슷하지만, 열심은 달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의 므나를 현재 화폐단위로 계산한다면 약 1000만원에서 2000

만원 정도이니 서민의 보따리 장사 수준이다. 아무튼 누가복음의 주인은 민주당 대통령스럽고, 마태복음의 주인은 공화당 대통령스럽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정치체제가 모두 등장한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악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정치라는 것의 성격상 악한 자들이 모여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진영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쥐게 하시는 것 같다.
-어떤 체제가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제가 더 도덕적으로 건전하냐의 문제이다. 우리가 보는 잣대는 이것이 중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세력 확산을 노리면서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문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는 화폐단위가 등장하는데, 한 달란트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1조원 가량이다. 다섯달란트면 5조원. 5조원 자산이라면 대기업 수준이다.(애경수준. 1위 삼성은 매출이 363조) 두달란트라면 2조원으 금호타이어 수준, 한 달란트 1조원이면 아시아나 항공, CJ오쇼핑 수준이다. 누가복음과는 차원이 다르다. (5조 미만, 5000억 이상인 기업은 중견기업)

만약 이 달란트를 화폐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재능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뛰어난 장사수완이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수완을 일부러 발휘하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아마 주인이 이 세사람은 장사수완이 뛰어나서 타고난 장사꾼으로 인정한 것 같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 한달란트만 준 이유는 태도가 바르지 않다고 느꼈던지, 아니면 주고 싶지 않았지만, 두사람 곁에 있어서 한달란트만 주었던지 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사람은 결국 반항심이 일어나서 일하지 않고 핑계를 만들어냈다.
아무튼 다른 두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역시 부자는 사업이다.)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자신에게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면서 순위가 결정된다. 기술, 아름다움, 열정, 재력, 인재관리능력, 영업능력, 홍보능력, 지식, 편리함, 편안함, 공감, 선망, 가격, 브랜드, 재능, 운, 시대적 감각, 보안, 정치력 등등 갖가지 요소가 작용하면서 순위가 결정된다. (달란트 스러움)
-가치나 행복 만족도 또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면서 만족도가 달라진다. 가정, 자기개발, 가치관, 친밀감, 우선순위, 건강, 결혼, 육아, 의식주, 선행, 희생, 부의 증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양하게 얽히면서 개인의 만족도가 정해진다. (므나 스러움)

-그러므로 단순히 일면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역시 공통적으로 화폐단위 평가가 가장 공정한 평가인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화폐의 장점은 거의 대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일 있을 경우(진정한 사랑?) 반드시 가난해야만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자가 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가난해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꼭 가난해야만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

-그리고 결론이 참 재미있다. 주어진 자산으로 재산을 얼마나 많이 불리느냐는 그리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한 므나로 10개에서 2개까지 늘리는 것은 각자의 가치관과 재능과 열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칭찬을 받으며,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주어진 재능과 재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에게는 지옥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 세상

에서 불편하고 덜 주어지는 기회로 만족해야 한다.

-불편하고 기회가 덜 주어지더라도, 가치관에 따라서 그 재능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부지런 했다면 재물을 더 많이 쌓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가치관에서 만족을 누릴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모으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그만큼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장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재물을 쌓는 것과 자신의 가치관에 그 재물을 소모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도 지혜가 된다.
-성경은 재물을 쌓기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과,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금하고 있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것을 금하지는 않고, 오히려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지어가면서 쌓아놓은 재물은 선한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

> 22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13:22)

(부자들이 부를 대물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악한 체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결론 가운데 하나는 28절이다.

>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주에서 1등을 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상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상을 줄 것인가?
삼성의 재산은 온 국민엑 나누어 줄 때 1인당 40만원이란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정신에 헌신하며,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아가되,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장 쉽게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하며,
-욕심에 빠지지 말고 틈틈이 선한 일과 구제와 영혼구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올바른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찬양예배〉

제목 : 양육의 지혜 성경: 예레미야 3장 14-19절

Tag:

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 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7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 그 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19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렘3:14-19)

기독교적 양육

-성경적 가치와 생활양식이 습관화 되도록 하라.

-양육이란 양육하는 자가 피 양육자의 습관의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도록 돕는 것이다.

-습관의 스위치는 때가 되면 스스로 켜지게 되는데, 그때의 환경과

양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물과 인간의 다른점은 동물들은 이미 유전자 안에 스위치가 고정되어 태어나는 것이 인간에 비해 많다는 것.
-인간은 양육에 의해서 이 스위치가 변경된다는 것.
-방치할 경우 켜지지 않거나, 당시의 환경에 따라 켜진다는 것.
-이 스위치는 생각보다 많다는 것.
-가장 중요한 스위치는 십계명의 스위치.
-그 다음이 의식주와 성실함
-그 다음이 재능
-그 다음이 시간과 재물
-그 다음이 인격과 윤리

천재와 정신병자는 한끗 차이? 스위치 차이
성별논란 유전자 때문 무의미함